공동체 소식

전교 주일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 전교의 달

-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내가 누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하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명심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웃에게 복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10월 평신도 협의회 정기 회의

- 금일 주일 미사 후, 나자렛 관

▣ 애찬 봉사자 모집

- 애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영민 엘리사벳 (총구역장)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28, 18-20)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450	212	172	6
차 주	452	342	497	234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김지안 요한
차 주	정예찬 미카엘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훈 로베르토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녜스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봉사조
차 주	김경희, 박계숙, 박동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띠노
차 주	이내익 베드로, 박태주 로마노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14	71 명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코린16,14-

2018년10월21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그림 묵상

선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세상의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시작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끙끙대는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마주하고 자신을 성찰해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화 답 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또는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9-18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생명의 말씀

말로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인류 구원의 참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믿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의 현실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전교는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덧붙여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맡겨진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어깨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하고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가두선교도 훌륭한 전교의 방법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는 싹을 틔우고 그 완성을 향해 힘차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구원 현실을 맛보게 하는 것, 그보다 더 효과적인 전교의 방법이 있을까요? 마치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루카 11,33 참조)이 자연스레 주변의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듯,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등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갈 길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전교의 근본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굶주린 이와 음식을 나누고, 병든 이를 위로하며, 슬퍼하는 이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맞잡아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라 하지만, 우리 각자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암울하고 외롭고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 고통의 현실을 홀로 헤매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면, 온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러 모여들 것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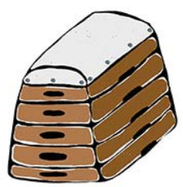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시범

맞는 말이지.
시범을 보았다고 누구나 다 뜀틀을 뛰어 넘을 순 없지.

그래도 말이야.
적어도 우리에겐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어?

시범도 보았고
같이 도전하는 이들이 옆에 있으니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

-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천장 벽화

파리 북쪽 몽마르트르 언덕 꼭대기에 꽤 유명한 성당이있습니다. 전망이 좋아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인 곳인데 돔으로 이루어진 성당에 들어가보면 천장에 그려진 예수님의 벽화가 꽤 인상적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움푹 파인 돔 안쪽에 그려져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이 앉아있는 나를 안으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엊그제 같은 몇 해 전, 느닷없이 쓰러져 한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었으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만 온종일 떠올랐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삶이 제게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저는 더 나빠지기 전에 제 주변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봉지에 진통제를 가득 넣고 유럽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파리의 전경을 보기 위해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라갔다가 성당이 눈에 들어왔고 내부도 둘러볼 겸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뜩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혹시 눈물이 나올까 봐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아픔의 고통은 저와 항상 같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림자처럼 같이 부여안고 살겠습니다. 다만 제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저로 인한 걱정과 슬픔이 크지 않을 정도로만 제가 저의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행을 마치고 한동안 후유증으로 더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왜인지 훨씬 가벼워지고 저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나아져서 기적처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일 때문에 파리에 오게 되었고, 다시 그 성당에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아프게 된 것도 믿을 수 없고 약을 끊고 이렇게 다시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남은 생을 감사하며, 자그마한 빛을 비추며 의미 있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 김호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

부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부제는 부제품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며 사제품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 부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일을 담당하는 중요한 보조자였습니다. 부제는 사도들(오늘날의 주교들)이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부제를 뽑게 된 것도 공동체의 식탁 봉사를 위해서였으니까요.(사도 6,1-7 참조) 중세를 지나면서, 초기 교회에 비해 부제의 역할이 미미해졌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사제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부제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임무를 염두에 둔 종신부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